

완도군, 군민 일상 회복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2년 넘게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확진자 추이가 감소됨에 따라 최근 강성운 군수 권한 대행 주재로 '코로나19 일상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일상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4대 분야에 4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상반기까지 1,470억 원을 집행하는 등 군민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경제·민생, 문화·관광, 보건·복지·방역, 행정 분야이다.

경제·민생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해양바이오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도지재생 뉴딜사업 ▲일자리 창출 지

원 ▲수산물 국내의 시장 개척 ▲농가 경영 개선 및 생산비 절감 사업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소안 항일운동의 섬 등 관광지 기반 조성 및 명소화 추진 ▲2022 가을섬 여행 추진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약산 해양치유의 숲 운영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개발 ▲완도여행 알뜰패스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이다.

보건·복지·방역 분야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 ▲청년센터 '완생' 운영 활성화 ▲건강가족 다문화 행사 ▲100세 시대 평생교육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등이다.

행정 분야는 ▲소비·투자 분야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교류 협력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이다.

/박나영 기자



완도군은 2년 넘게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확진자 추이가 감소됨에 따라 최근 강성운 군수 권한 대행 주재로 '코로나19 일상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보성군, 국악 버스킹 '호평'

판소리 서편제의 분향 보성군이 선보이는 '국악 버스킹'이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회천면 소재 울포해수욕장센터 앞 광장에서 '보성별곡 국악 버스킹'을 열고 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되는 공연은 보성의 젊은 국악인들의 공연으로 채워진다. 국악 공연단체 보성아리랑예술단은 전통 판소리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을 가미한 퓨전 판소리 공연을 준비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보성별곡 국악 버스킹'을 관람한 한 관광객은 "울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선조들의 풍류와 멋을 되새겨 볼 수 있었고,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가볍게 즐기는 우리 가락, 국악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별곡 국악 버스킹'은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성판소리 성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상설 락(樂)' 공연이 열리고 있다. /김윤성 기자

고흥군, 용수 및 수질관리 총력 추진

고흥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봄가뭄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1천10ha의 경지면적이 물부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대책을 수립, 정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흥군 강수량이 과거 30년 평균(1981~2010년) 대비 최근 3년 평균(2017~2019년) 150.2mm 감소하는 등 최근 봄 가뭄이 일상화 돼 용수공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등 관련기관에 가뭄대책 일환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건의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도비 122억원 포함 총 사업비 209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풍양 백석 및 동강 장덕마을 등 125개 지구에 관정을 개발하고 있고, 포두 안동 및 동강 죽암지구 등 8개 지구에는 양수장 및

취입보시설, 도화 지등·남양, 화담·대서 금당저수지 등 9개소는 노후 저수지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에서 농경지로의 농업용수 공급 원활을 위해 용·배수로 퇴적토준설 25km, 일조량 증가로 인한 담수호 염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염해 예방을 위해 포두면 해장만 등 간척지내 시설된 양수장 30개소에 염농도 측정장치를 설치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이 완료되면 182ha의 광활한 경지면적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게 돼 농업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현상이 지속될 것에 대비, 농업용수가 부족한 건의 지구에 대해 국도비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용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원활한 영농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문석 기자

해남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문연다"

해남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계곡면 둔주리 (구)계곡중학교에 위치한 체류형 지원센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원스톱 귀농교육단지이다.

지난 2020년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1만 6천23㎡ 부지에 체류형 주택 12세대, 교육관, 세대별 텃밭, 공동실습농장, 시설하우스, 농기계 자재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를 통해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기술교육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귀농 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으로 해남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체류형 지원센터는 올해 첫 교육을 위해 이달 중 교육생을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7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센터 입주 및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 인구정책과(061-531-4272)로 하면 된다. 센터 개소 및 운영은 입주자 선정과 함께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장흥, 물축제 앞두고 친수시설 안전점검

장흥군은 물축제를 앞두고 탐진강을 찾는 방문객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친수시설 개선현장을 점검했다.

현재 정비중인 주요 친수시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예방교 아래 수중보와 장흥교-장흥대교 사이 천변 보행자 데크,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터널부수 관로 등

이 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탐진강 방문객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히기 위해 전기공사 완료 전 예방교 아래 수중보를 임시 기립해 징검다리 옆으로 시원한 물이 쏟아지게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변 보행자 데크는 흥수 시에도 피해가 없도록 견고한 에이치밀 지

주를 설치 중에 있다. 터널부수는 관로보수를 완료했으나 아직 수위가 부족해 가동을 못하고 있다. 수중보의 전기공사가 완료되는 6월말 탐진강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물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조속한 사업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근 기자

진도,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진도군이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오는 7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밀경작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가정의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밀경작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 수 없다. 또한 단속기준이 기존에는 50주 미만 불법 재배 시 불입건에서 올해부터는 주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현일 기자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